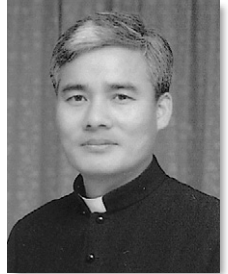


주일의말씀

죽음으로 몰고 가는 욕심

이성진 요아킴 신부
덕수성당 주임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입니다.

먼저 가죽으로 자루를 만들고, 그 입구를 좁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루 속에는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잔뜩 넣어서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원숭이들이 나타나 자루 속을 들여다보다가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좋아 날뛵니다. 그리고는 '얼씨구나!' 하면서 자루 속에 손을 집어넣어 과일을 꺼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원숭이의 손은 자루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좋아하는 과일을 잔뜩 움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숭이는 손을 빼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과일을 꼭 움켜잡고 놓지 않기 때문에 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를 놓치지 않고 원주민들이 나타나 자루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원숭이를 손쉽게 잡습니다.

원숭이는 다른 동물들보다 영리하다고 하지만 가장 간단한 이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손에 쥔 먹이를 놓기만 하면 잡히지 않을 텐데, 움켜쥔 과일을 포기하면 살수 있는 데도 원숭이는 어리석게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으면서도 눈앞에 놓여 있는 과일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죽음으로 다가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욕심은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먹이에 대한 욕심, 자신의 손안에 움켜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지나친 욕심 때문에 결국 원숭이는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이 미련한 원숭이와도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 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이 부유한 사람은 작은 공간을 헐고 큰 공간을 새로 짓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 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어리석은 부자는 바로 미련한 원숭이 같은 사람입니다. 부자가 기껏 생각해 낸 것이 어떻게 하면 그 많은 수확을 혼자서 독차지하면서 즐길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부자는 그날 밤에 횡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부자는 그 많은 수확을 혼자서 독차지하지도 못했고, 실컷 쉬고 먹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둔 곡식은 다른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원숭이처럼 오로지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에만 몰두해 있습니다. 오직 자신이 모은 재물에만 집착해 있습니다. 온통 내 것에 대한 욕심뿐입니다. 내 곡식, 내 창고, 내 재산,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 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는 원숭이처럼 자신의 재산을 꼭 움켜잡고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곧 죽게 되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는 채 오직 자신의 재물만 움켜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어리석은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이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리하다."

누구나 하느님 앞으로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우리들입니다. 세상 것을 움켜쥔 것이 아니라 늘 하느님을 움켜쥐고 하느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생명에 대하여 ④ 생명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교구 사목국

※ 지난호에 이어서

3. 교회는 살인(殺人)을 단죄합니다.

하느님은 동생 아벨을 죽인 카인을 처벌하셨습니다.(7항) 살해당한 사람의 피는, 그 피가 흘렀던 땅으로부터 하느님께서 정의를 펼치실 것을 요구합니다.(창세 37,26; 이사 26,21; 예제 24,7-8 참조) “피는 곧 생명”(신명 12,23)이며, 생명, 특히 인간의 생명은 오직 하느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 생명을 공격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의미로 하느님 자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9항)

4. 교회는 안락사(安樂死)를 단죄합니다.

안락사란 죽음을 조절하여, 정해진 시간 이전으로 앞당기는 것이며, 자신의 생명이나 타인의 생명을 ‘편안하게’ 끝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간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안락사를 잘 살펴보면 무의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를 알 수 있다”(64항) 왜냐하면 안락사란 오직 생산성이라는 기준 위에 조직되어 있는 죽음의 문화의 탓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희망이 없을 정도로 손상을 입은 생명은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64항) 안락사는 ‘과도한 의학적 치료’를 그만두는 것과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안락사는 하느님의 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그것은 인간에 대한 고의적이고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살해행위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러한 행위에 자살이나 살인에 해당하는 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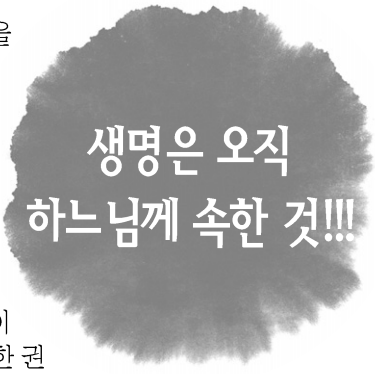
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65항) 자살은 언제나 살인이나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삶과 죽음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

니다.(66항) 낙태와 안락사란, “인간이 지닌 침해할 수 없는 권리들이 연속하게 선포되고 생명의 가치가 공적으로 인정되는 순간에, 즉 탄생과 죽음의 순간에 부정되거나 짓밟히고 있는 것이다”(18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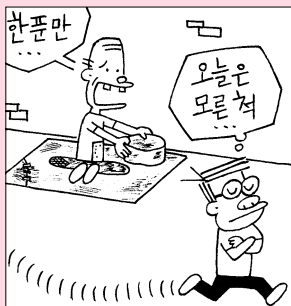
5. 교회는 사형제도(死刑制度)를 반대합니다.

“살인자조차도 인격적인 존엄성을 잃지 않는다. […] 죄인을 죽이기보다는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하느님께서서는 살인이 또 다른 살인행위를 통해서 처벌 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9항) 따라서 사형은 처벌의 본질과 범위를 신중하게 평가하고 결정해야 하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즉 다른 방법으로는 사회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는 극단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회는 분명히 가르칩니다.(56항)



있을 땐 언제나 인색치 말고

박성규 엘리시오





오늘의 미사

연중 제18주일

입당 성가

61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화답 송

◎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복음 환호 송

◎ 알렐루야.

봉헌 성가

512 주여 우리는 지금

영성 체송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빵을
주셨으니,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
이다.

파견 성가

49 용기장이

영성의 향기

::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느님 사랑

하느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또한 그분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는지, 그 전해진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탄
생하셨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어 있는 성경과
교회의 거룩한 전승인 성전입니다. 두 번째는 교
회 안에서 은총과 상징을 통한 성사들, 그 중에서도 세례 성사와
성체 성사입니다. 세 번째로 하느님의 현존과 사랑이 존재하는
장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친교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생명의
빵을 모시지 못해 영적으로 자랄 수 없다거나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참다운 신앙인이
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뜻일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파견되시어 우리를 위해 구원하
시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 이곳에서 하느님을 만나거나 체
험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
께서는 말씀하실 때 우리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속성인 완전함을 담길 원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인
간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시는 하느님의 영적 손길을 사랑
으로 알아들을 수 있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인들
은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왔고 그것을 살아왔고 그들이 글 속에서
늘 성경이 인용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구 유나

- 권가타리나 수녀 -

짧은 글 - 깊은 생각

'예'와 '아니오'



질문은 수없이 다양하게 할 수 있으나 대답의 대부분은 '예'와 '아니오'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예'와 '아니오'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몸에선 각기 다른 반응이 일
어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인가에 상관없이 대답을 '예'라고 할 땐 근육이 이완되고 뇌에선 몸
에 좋은 호르몬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반대로 '아니오'라고 할 때는 근육이 수축해 긴장하게
되고 뇌에서 건강에 좋지 않은 호르몬들을 내보냅니다. 따라서 원하는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
해서는 상대방이 '예'라고 하게끔 질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질문을 제외하고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대답을 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확
신을 심어주거나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격려를 해주려고 할 때도 당연히 상대가 '예'라고 대답
을 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네 다음과 같은 부가의문문을 사용함으로 더욱 쉽게 긍정적인 대답을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네가 할 수 있지?, 그게 될까?, 해야 하지?, 그게 옳지?, 그럴겠지?, 네가 할 거지? 짧은 한 마디의
대답이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나 마음먹은 일들을 권유받았을
때는 주저 없이 긍정의 대답을 합시다.

- 옮겨온 글입니다. -

로마성모대성전 축일전대사미사

• 일시: 8.5(목) 11:00, 성모당

100주년 기념대성전 설계 지명업체 안내

※ 설계공모에 참여한 업체와 경기에 지명된 업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 모임·행사★

사형시기연수(9.김정선),발성법박재연 회비:1만원

• 일시: 8.1(일) 15:00, 장소: 가톨릭음악원(255-4847)

제2회 한국청년대회 발대미사

- 일시: 8.8(일) 15:00
 - 장소: 삼덕 젊음이 본당
 - 대상: 제2회 한국 청년대회 참가자 전원
- 김원조(라우렌시오) 신부님 은경축**
- 일시: 8.8(일) 15:00
 - 1부: 감사미사, 2부: 축하식, 3부: 축하연
 - 장소 및 문의: 성요셉 성당 6349591

교구설립 100주년 기념

한국가톨릭미술가 100인 초대전

- 일시: 8.14(토)~27(금) 16:00
- 장소: 대구경북디자인센터 4층 전시장
- 주최: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문의: 주노아트갤러리 011-588-5252

보다 더 나은 혼인생활을 위한 -ME주말초대

- 대구80차: 8.(금) 19:00-8(일) 18:00
- 대구281차: 8.27(금) 19:00-29(일) 18:00
- 장소: 한티피정의집 4735712
- ME주말에서는 더 깊은 사랑의 대화 방법을 체험하게 됩니다.

★ 피정 ★

소보동지 일일 성사피정

- 일시: 8.12(목), 소보동지
- 문의: 054-382-0260

스승예수의 제자수녀회 여름성소대피정

- 일시: 8.(금)~8(일) 2박3일
- 장소: 경기도 여주스승예수 피정의 집
- 회비: 4만원, 대상: 35세미만 자매님
- 문의: 010-2717-0863(싸이@susikipddm)

예수의 까리파스 수녀회 성소모임 말씀피정

- 일시: 8.(금)~8(일), 양평 수녀원
- 문의: 010-2568-5231

말씀묵상피정

- 일시: 8.15(매달 셋째 주일) 10:00
- 장소: 티업스신마리아 성심수녀회(부산)
- 문의: 010-2835-4858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 일시: 8.21(토)~23(일) 2박3일 17:30
- 8.24(화)~28(토) 4박5일 14:00
- 8.9(일)~17(화) 8박9일 14:00
- 장소: 파주 교하 예수마음배움터
- 문의: 031-946-2337,8

★ 모집·교육 ★

새빛학교 한글·국어반 신입생 모집

- 접수: 8.5(목) 선착순
- 대상: 한글에 자신없는 성인남녀
- 문의: 새빛학교 476-3100(교대역3번출구)

ADHD경계선 어린이 여름캠프

- 일시: 8.15(일)~19(목) 4박5일
- 동자와 이미지를 통한 치유워크숍
- 일시: 9.(토)~5(일) 1박2일

- 주최: 푸른평화예술킴리치료상담연구소
- 문의: 794-6022/010-3513-2225

환경위원회 교육생모집(010-5250-3523)

- 명상체조반(수강비: 6만원)
- 일시: 8.24(화) 개강 - 화, 금 14:00-16:00
- 천연화장품만들기반(수강비: 1만원)
- 일시: 8.26(목) 개강 - 목 14:00-18:00

장소: 교구청교육원가동 환경위원회사무실

제8회 대학생 해외봉사 & 어학연수

- 일시: 2차 8.29(일)~10.25(일) 8주, 12주
- 3차 9.29(수)~11.25(목) 8주, 12주
- 기간연장 및 캐나다, 호주연계 연수가가능
- 문의: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5931273

수도자와 함께하는 해외성지순례

- 일정: 10.7(목)~20(수)
- 순례자: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예트라)
- 문의: 010-4147-6241 (담당: 정다리아수녀)
- 주최: 아제시의프란치스코전교수녀회 영성연구소

제15기 성요셉 아버지학교 개설

- 일시: 8.28(토) 15:00~21:00, 매주 토요일(7주간)
- 장소: 교구청 별관 1층 대회의실
- 대상: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면 누구나가능
- 마감: 8.24(화) 17:00까지, 신청비: 15만원
- 문의: 3대리구청 641-5678

대안성당 성가대 오르간 반주자 모집

- 문의: 대안성당 2526249

★ 안내 ★

- 안전하고 편안한귀가, 가톨릭 호출이 있습니다.
- 053551-1004(오오 하느님 천사)

미사	일시	장소	미사	일시	장소
밀알후원회 및 시각장애인 선교회 월례미사	8월 2일(월) 오전 11시	계산주교좌성당	한국SOC어린이마을 후원회 월례미사	8월 4일(수) 오전 11시 30분	한국SOC어린이마을 2층강당
5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8월 2일(월) 오전 11시	신평성당	민족의화해와일치를 위한미사	8월 5일(목) 오후 2시	성모당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8월 2일(월) 오전 11시	성동프리텔413호	미바외미사	8월 6일(금) 오후 2시	성모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8월 2일(월) 오후 7시 30분	꾸르실리스 교육관	성모의기사회미사	8월 7일(토) 오전 10시	월배성당 내 수도원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미사	8월 2일(월) 오후 10시	한티순례자의집	푸른군대 첫 토요일신미사	8월 7일(토) 오후 2시	성모당

장수옥돌침대
 침대공장 → 대리점 → 소비자
 2인용 옥돌침대 88만원
 신앙에 비추어 양심적 교우님들께 팔겠습니다.
대표전화 : 656-9990

여러분의건강을안심시켜드리겠습니다.
안심내과
 <30년 전통의 (구)이상계 내과>
 내과 전문의 5인 진료 765-3771
 심장 · 순환기, 소화기 · 내시경 전문
 공단검진, 5대암검진, 각종 종합검진
 들안길네거리~황금성당 사이

치질 · 치루 · 항문병 수술
선일외과의원
 원장, 전문의: 배선익(사도요한)
TEL: 745-6633~4
 지하실 2호선 범여역
 범여네거리, 수성못방향 → 300m

결혼정보회사
 혼인을 앞둔 교우 자녀와
 엘리트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주)코리아알트만
 박복순(오르타미아)
 ● 지하실 2호선 범여역 4번 출구 ●
TEL 743-4488 FAX 744-1594

달성피부과
 BF 아토피센터 1F 레이저, 탈모
 2F 여드름, 흉터 3F 비만피부수술
 손제경 다미아노
 김인주 레자나
 7호광장 두류역 2,3번 출구
Tel. 566-4333, 559-7575

연세소아발달연구소
 (아동, 청소년, 성인, 가족치료센터)
 복지부 치료비 지급(바우처 제도)
 매월 1인당 128,000~220,000원 차등 지원
 *침리, 놀이, 미술, 음악, 언어, 학습치료ADHD 등
 소장 조옥형(아네스) / **652-9000**

자기주도학습 11코칭 효과
 성적향상, 학습태도 개선, 자신감향상
 시험불안 해소, 관계개선
 행복한 학습코칭센터 대표
kpc 고은경(미카엘라)
 상담실: 053)355-2630(범여), 011-829-8756
 *자기주도학습코치전문가 과정 모집 중

수맥훈(돌)침대
대표전화: 1588-5335
20주년 공장 직판
수맥지도 임응승 신부님